‘고액알바’ 광고 속아 보험사기 연루 증가

금감원, 일반인 모르고 범죄 공범 될수도 있어 주의 당부

최근 돈이 궁한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 받게 될 처지에 놓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한 보험사기 조직은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구인 사이트에 ‘차량 운전 70만원, 탑승 3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광고했다.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취업 준비생들이 하게 된 일은,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의 이른바 ‘칼치기’ 보험사기였다.

이들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혐의자 84명은 30건의 사고를 일으켜 모두 5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가운데 74명은 구인 사이트 등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문구를 보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구인사이트와 세차장,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돈을 미끼로 벌어지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조직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을 가로챘다.

세차장 업체가 세차·유리막코팅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면서 고객을 사기에 끌어들였던 경우도 있었다.

또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 의사 명의를 대여해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내주기도 했다.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감원 공동 조사 결과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은 43곳, 범죄에 연루된 976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 등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일반인을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을 범죄에 연루시키려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범죄신고센터를 개선하고,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민근기자

장애인 · 장노년 · 저소득 · 농어민 등

스마트정보화 일반인의 60%

PC 보유 · 인터넷 이용유무 등 평가결과

장애인·장노년·저소득·농어민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은 일반 국민의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전국 장애인·장노년·농어민·저소득층 등의 정보격차 수준을 조사한 ‘2015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선PC기반 정보화수준은 79.5%로 전년 대비 2.9%p, 유선PC와 모바일을 통합한 스마트정보화 수준은 59.7%로 2.3%p 개선됐다.

유선PC기반 정보화수준의 경우 접근수준은 일반 국민의 94.6%(전년 대비 0.3%p↑), 역량수준은 70.8%(6.7%p↑), 활용수준은 68.0%(4.5%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은 PC 보유 여부, 인터넷 이용 유무 ▲역량은 PC·인터넷 이용능력 ▲활용 수준은 PC·인터넷 이용시간, 일상생활 도움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시범 실시된 스마트정보화수준의 경우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80.8%, 역량수준은 44.0%, 활용 수준은 60.0%로 집계됐다. PC기반 평가에 모바일 스마트기기 항목을 추가 조사했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과 결혼이민자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은 일반 국민의 74.5%와 73.1%로 차이 없었지만 장노년층과 농어민은 56.3%와 55.2%로 격차가 컸다.

미래부는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미래부가 정보격차지수를 처음 산출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PC기반 정보화수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년만에 45.%에서 79.5%로 34.5%p 개선됐다.

계층별 개선폭은 농어민(38.4%p), 장노년층(36.5%p), 저소득층(32.1%p), 장애인(28.7%p) 등의 순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격차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스마트격차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혼자있는 애완견을 위해 2일 늦은 밤 귀가하는 가족들, 어두운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애완견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화제다. 스마트홈 조명솔루션 전문기업 반디통신기술(www.bandion.co.kr, 대표이사 임태환)이 개발한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이다.

“한국 수출, 앞으로 큰 개선 어려워”

엔화약세 · 저유가 지속 악영향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큰 개선이 어려우며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1월 367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이 비해 18.5% 급락했다.

규모로는 지난해 1월 451억 달러에 비해 84억 달러 줄어든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환율과 저유가,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했다”며 “2016년 1분기만을 놓고 볼 경우 수출은 -5% 하락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호 산업은행 국내경제분석팀 차장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과 수입에 모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출이나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난해까지 수출 물량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단가 측면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부진했다”며 “계산상으로 작년 같은 물량세가 유지가 된다면 수출이 회복하겠지만, 국제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부진과 수익감소는 물론 세계교역증가율 역시 둔화되는 중”이라며 “엔화의 약세와 지속되는 저유가가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기업은행,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대출금 내주는 방카슈랑스 판매

IBK기업은행은 대출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카슈랑스 상품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보험사가 대출고객의 사망, 암 등 보험사고의 경우에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 보편적이다.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서 최대 15년까지 1년단위로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장금액도 대출금액 내에서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금감원, 대대적 조직개편 · 인사 발표

1일 금융감독원은 43국 14실을 44국 15실로 확대하고,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인사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검사·제재 개혁에, 인사이동은 세대교체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들은 영업점, 보험대리점 등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법규위반사항에는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융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도 39명에서 79명으로 늘렸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 부원장은 1명이 늘어 4명이 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취지에 맞춰 검사 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키로 했다.

건전선 담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전담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지도로 끝나도 될 부분을 굳이 제재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이뤄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검사·감독을 할 때, 법규위반에 대한 부분은 강화하고 제재로 끝나도 될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업무도 재편했다.

그간 은행과 비은행의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부원장보는 ‘은행·비은행 검사 부원장보’와 ‘은행·비은행 감독 부원장보’로 나뉘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를 ‘은행 부원장보’와 ‘비은행 부원장보’로 재편, 한 사람이 해당 권역의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넷마블게임즈 지난해 연매출 1조원 돌파

넷마블게임즈가 2015년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장수 인기 게임과 신작 게임이 고루 흥행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5년 매출이 전년대비 86% 성장한 1조72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225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연결실적 기준으로 4분기 매출은 3438억원, 영업이익 656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또 한번 갈아엎었다.

넷마블의 4분기 실적 호조는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등 기존 게임이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넷마블이 지난해 선보인 다양한 신작 가운데 ‘레이븐’ ‘이데아’ ‘백발백중’이 흥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효자 타이틀로 떠올랐다.

글로벌 매출 성장세도 호실적을 이끌었다.

‘모두의마블’은 전세계 2억 다운로드 및 5000억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마블퓨처파이트’는 출시 6개월만에 30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으며, ‘세븐나이츠’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매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넷마블의 해외 매출비중은 2014년 17%에서 2015년 28%로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약 40%로 확대되며 해외 성과가 본격화가 이뤄지고 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규모와 속도의 글로벌 경쟁에 주력해 올해를 글로벌 게임회사로 본격 도약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